불교문화포털, 교계 언론 탑재로 '고도화'

동국대 불교학술원, 포털 뉴스보드 시연회

3차 고도화 사업 진행 통해
본지 등 5곳 언론 기사 탑재
검색 기능 추가 등 '리뉴얼'
오는 3월 중 정식 오픈 예정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문화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디지털 플랫폼인 '한국불교문화포털'이 고도화 작업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간다. 불교계 주요 언론들의 최신 뉴스를 비롯해 학술·문화유산·기록유산 등의 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 종합 포털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은 1월 21일 '한국불교문화포털 뉴스보드 시연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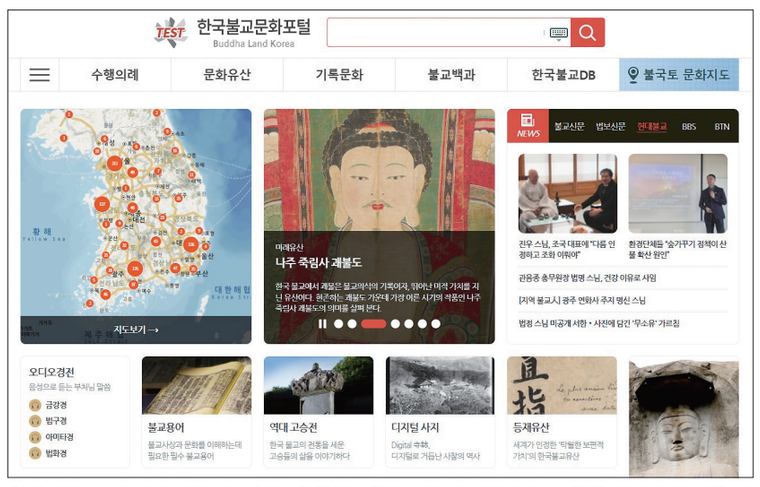
'K-Buddhism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운영되고 있는 '한국불교문화포털'은 현재 베타 테스트 단계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3차 고도화 작업을 통해 지속적인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운영 4년차를 맞는 '한국불교문화포털'은 한국불교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수집·가공해 지리정보(아틀라스) 기반으로 제공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불교사상을 이해하는 필요한 불교용어부터 △역대 고승전 △디지털사지 △역대고승전서 △오디오 경전 △한국불교 대표문헌 △등재유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고도화 작업은 불교 현대사 기록 매체로서 가치를 가진 불교계 주요 언론의 최신 뉴스를 포털에 뉴스보드 형식으로 탑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포털에 탑재되는 교계 언론은 현대불교신문을 비롯해 불교신문, 법보신문, BBS불교방송, BTN불교TV 등 총 5곳이다.

K-Buddhism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사업단(단장 박인석, 이하 KB사업단)에 따르면 교계 뉴스 보드는 메인 페이지 상단에 노출되며 최신 뉴스를 주기적으로 수집해 제공하게 된다. 각 언론사별로 최신 기사 4~5건이 1시간 단위로 업데이트되며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동되는 방식이다. 각 언론사는 불교학술원 KB사업단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2월 9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도윤수 KB사업단 정보기술팀장은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불교 언론 뉴스는 제대로 노출되고 있지 않다. KB사업단에서는 교계 언론만을 위한 뉴스 제공 서비스를 진행하려 한다"면서 "각 언론사와의 실무 협의를 거쳐 3월 1일 본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포털을 리뉴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테스트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한국불교문화포털 메인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본지를 비롯한 주요 교계 언론 기사가 노출되는 뉴스보드가 새롭게 탑재될 예정이다.

이어 "올해부터는 4차 고도화 작업을 통해 전면적인 디자인 개편이 이뤄진다. 상반기 중으로 개편을 마치면 테스트 버전이 아닌 포털을 정식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수 KB사업단 불교백과팀장은 "불교 포털이 없던 것은 아니다. 앞서 '달마넷' 등이 있었지만 공공성보다는 상업성이 강해 지속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한국불교문화포털은 동국대가 중심이 돼 공공 목적으로 개발·운영 중이다. 교계 언론도 공공성을 강한 만큼 두 기관이 지향하는 바를 하나로 모아 낸다면 높은 시너지 효과 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KB사업단은 뉴스 보드와 함께 검색 기능도 추가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인석 KB사업단장은 "지난 4년 동안 자료들이 어느 정도 축적될 때까지 검색 기능을 추가하지 않았다. 이제는 자료 전반의 축적이 많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검색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면서 "주제어를 입력하면 한국불교문화포털뿐 아니라 네이버, 구글 등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포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서불대, 나가난다 국제불교大와 MOU

1월 13일 스리랑카 현지서
5년간 교류, 연구사업 진행

서울불교대학원대학(총장 황동필)이 스리랑카 나가난다 국제불교대학(부총장 보다가마 찬디마 스님)과 교류·연구 사업을 전개한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은 1월 13일 스리랑카 현지에서 나가난다 국제불교대학과 양국 불교 교육의 발전과 학술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기념하는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스리랑카 현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황동필 총장을 대표해 불교학과 학과장이자 불교와심리연구원장인 정준영 교수가 참석해 협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학술적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향후 5년간 교수 및 학생의 상호 교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수행, 연구 자료 및 출판물의 교환, 국제 심포지엄 및 학술회의 공동 개최 등 7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식과 함께 진행된 '경계를 넘어서는 불교 명상(Buddhist Meditation across Boundaries)' 이라는 주제의 공동 학술대회를 통해 최근 수십 년간 불교 명상이 전통적인 수행의 틀을 넘어 심리학, 교육, 치유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상을 다루었다. 참가자들은 명상의 전통적 뿌리를 고수하면서도 현대 사회의 요구에 창의적으로 응답하여 인류의 웰빙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비록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황동필 총장은 서면 메시지를 통해 "이번 협약이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불교 교육과 연구를 발전시키는 지적 동반자 관계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축하의 뜻을 전했다.

양 기관은 이번에 발간된 학술대회 논문집을 기초로, 지속 가능한 학술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이어 갈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서울불교대학원대학 불교학과장 정준영 교수가 1월 13일 스리랑카 현지에서 나가난다 국제불교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행선연구원 불교학 진흥사업 '주목'

묘공학술상 공모 방식 변경
'한마음연구' 논문 게재 시
학술상 후보로 심사 대상돼
장학생 공모, 3월 1~31일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선사상과 한국불교학 진흥을 위한 대규모 학술공모사업이 올해에도 이어진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대행선 사상 연구와 불교학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와 학술상, 장학금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대행 선사의 법호인 '묘공'을 인용해 제정된 '묘공학술상'은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공모·선정 방식이 대폭 변경됐다.

그간에는 예비 선정자를 선발해 집필계약을 하고 1년의 논문 작성 기간을 두고 접수된 논문을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이전 연도에 발행된 〈한마음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심사·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을 맞는 2027년 6월에 시상하는 제9회 묘공학술상의 심사 대상은 〈한마음연구〉 제17집(2026년 8월 발행)과 제18집(2027년 2월)이다. 올해 모집하는 〈한마음연구〉 특별 주제는 '대행 스님과 한국사회', '대행 스님과 한국불교의 미래'다. 특별주제가 아니어도 게재 논문은 모두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10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7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제8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도 이뤄진다.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거나 논문 작성을 계획 중인 대학원 재학생 및 박사 과정 수료 후 3년 이내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발 공모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공모 신청방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마음연구〉 원고 모집도 연중 이뤄진다. 투고 자격은 박사 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불교 관련 인문학·이공학 등의 연구자이며 투고는 연중 접수 받는다. 〈한마음연구〉는 연회비, 심사비, 게재료 등을 받지 않으며 게재 완료 시 연구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대행선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아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학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군포 정각사학술원 신진 연구자 모집

지원 서류 접수 2월 1~20일
매월 연구비 100만원 지원

군포 정각사학술원(원장 정엄 스님, 정각사 주지)이 젊고 유능한 불교학 연구자를 공개모집한다.

정각사학술원은 "불교학 신진 연구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연구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선발되면 1년간 월 1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박사학위를 취득·수료한지 2년 이내, 45세 이하이거나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면서 한국연구재단인증 KCI 등재지에 논문 1편 이상 발표한 출·재가 연구자이다. 다만 월 100만원 이상 고정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연구성과 목록, 연구계획서, 신행계획서이며, 출가자의 경우 승려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차 서류 접수는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메일(so000113@naver.com)을 통해 받으며 2차 면접은 2월 25일 오후 1시 정각사 상담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한다.

신중일 기자



연기를 보면 곧 진리를 본 것이다!
쫑카빠의 연기찬 주석
쫑카빠는 불교의 가장 기본 사상인 '연기'를 52개의 간략한 게송으로 보여주고, 여기에 짱캬 롤빼돌제가 주석을, 역주자가 알기 쉬운 설명을 붙였다.
쫑카빠 게송, 짱캬 롤빼돌제 주석, 정성준 옮김/신국판/316쪽/값 20,000원

대승의 기원을 다룬 기념비적인 책!
불교와 에크리튀르
서양 인문학의 첨단 이론을 과감하게 접목하여, 대승불교의 역사를 사상사뿐 아니라 사회사의 관점에서 혁신적으로 재해석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시모다 마사히로 지음, 박현진 옮김/신국판/480쪽/값 28,000원

불교사상과 최신 생물학의 연관성을 탐구!
다르마와 DNA
저명한 진화생물학자인 저자가 DNA라는 구체적 실험 대상을 통해 불교의 명제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불교사상의 원리와 논리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디 덴버 지음, 이동수 옮김/신국판/360쪽/값 2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